

漢字와 한글과의 關係性

金 能 根*

序 論

- I. 中國에 있어서의 漢字問題
- II. 日本에 있어서의 漢字問題
- III. 漢字의 傳來와 訓民正音 創製의 本旨
- IV. 開化期와 日帝治下의 漢字와 한글
- V. 表意文字와 表音文字
- VI. 同音 異義語에 對하여
- VII. 主體性確立을 위한 한글 專用說에 對하여
- VIII. 漢字는 國字가 아니라는 主張에 對하여
- IX. 漢字難解說에 對하여
- X. 二重語文使用 不合理說에 對하여
- XI. 漢字中毒說에 對하여
- XII. 漢字機械化不能 主張에 對하여
- XIII. 一方廢止, 一方獎勵의 矛盾된 主張에 對하여
- XIV. 한글教育 25年間의 實況
- XV. 漢字教育復活實施의 當然性

結 論

序 論

解放以後 우리나라의 語文政策은 一部偏狹한 한글人士들의 執拗한 主張에 依하여 한글專用, 漢字廢止의 教育으로 誤導되었다. 이에 對하여 많은 學界人士 및 學術團體들로부터 거듭된 是正促求가 있었으나 아무런 效果도 거두지 못한채 全然 無視되어 오던中 드디어 1970年度부터 중래 初·中·高校 教科書에 있어 括弧안케 넣어 가르치던 漢字를 完全히 除去하는 措處를 斷行하는데 이르렀다. 그런데 漢字語는 우리 言語의 殆半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漢字는 學徒의 知能開發과 概念構成에 유익하고 道義心涵養과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키는데 있어 不可缺의 文字라고 筆者는 確信한다. 이와같은 確信은 中·高等學校와 大學의 教壇에서 40餘年間 직접 가르친 經驗에 依하여 얻어진 것이다. 韓非子 初見秦篇을 보면「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者는 智慧롭지 못한 者이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者는 忠誠되지 못한 者라」는 말이 있다. 筆者는 一生教育에 從事해온 사람으로써 한 나라의 語文政策이 誤導되어 가고 있는 것을 目覩하면서 唯唯追從하거나 對岸火視하는 것은 韓非子의 말과 같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不忠한 姿勢라고 생각하고 이제 淺學薄識을 不願하고 本 論述을 試圖하는 바이다.

* 哲學科 名譽教授

本論述의 內容을 撮略하면 (1) 漢字輸入의 歷史的 由來와 (2) 우리와 같은 東洋文化圈에 속하고 있는 中日兩國의 漢字教育現況과 (3) 漢字自體가 지니고 있는 價値性과 (4) 漢字廢止는 國語를 破壞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事實을 究明하는데 있어 어디까지나 客觀的 立場에서 事理를 冷徹히 判別하여 漢字廢止의 無謀性과 韓글과 漢字混用의 有益性을 論하였다.

이 論述過程에 있어 相對方을 辯駁한 箇所가 종종 있을 것이나 그것은 決코 論爭을 일삼자는 것이 아니고 眞理를 探求하는 過程에 있어 不可避的으로 일어나는 附隨的 現象에 不遑하며 本論述에 不條理한 것이 있다면 讀者 諸賢의 叱正을 甘受하려 한다.

I. 中國에 있어서의 漢字問題

中國은 阿片戰爭(1840~1842) 후에 大中華라고 自尊妄大하던 傲氣가 하루아침에 꺾이고 西洋을 오랑캐로 보던 偏見을 버리는 동시에 지나치게 自國文化에 대하여 輕蔑感을 가지고 過激한 變革을 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近世 後進性의 原因의 하나를 그들의 語文에 轉嫁시켜 文字改革을 부르짖게 되었다. 西洋學者들 중에서도 이에 同調한 자들이 많게 되어 漢字는 하나의 憎惡와 侮辱의 대상이 되었다.

18世紀末에 일어나서 19世紀에 그 隆勢를 極한 言語文字學의 創始者中の 한 사람인 Schlegel은 世界言語를 無機的 言語와 有機的 言語의 둘로 나누었는데 言語學者 Bopp(1791~1867)는 華語를 無機語에 속하는 低級語로 規定하고 印歐語는 最上級에 속하는 言語라고 하였으며 Clodd라는 言語學者는 그의 著 *The Story of the Alphabets* 中에서 「中國은 進化가 停止된 地方으로서 그 言語는 單音時期를 免치 못하고 語尾의 表示가 없으므로 다만 그 詞의 位置에 依하여 判定할 수 있을 뿐이라」고 評하였다.

이와같이 世界言語學 權威들의 酷評을 받은 中國語에 대하여 中國自體에 있어서도 共感하고 積極的으로 文字改革을 提唱하여 漢字拼音方案을 考案하고 또 라틴字拼音運動도 展開하였다. 盧贇章은 『切音新字』(1892)를 制作하고, 錢玄同, 黎錦熙, 趙元任 등은 『國語羅馬字』를 制定하여 1928年 南京大學院에서 正式 公布하고 瞿秋白, 吳玉章 등은 『拉丁化新文字』(1931)를 制定하고 其外에도 朱文熊은 『江蘇新字母』(1906)를, 劉孟陽은 『中國音標字書』(1908)를, 黃虛白은 『拉丁字臆解』(1909)를, 邢島는 『拼音字母』(1913)를, 劉繼善은 『新華字』(1914)를, 鍾雄은 『新字母發明書』(1918)等 著書를 내었다.

이와 같은 趨勢에 따라 民國 7年(1918) 11月, 教育部는 注音字母(注音符號)를 制定 公布하여 37字母를 通用하도록 하고 19年(1930) 4月, 國民政府令으로 『注音符號』를 改正하여 漢字 簡素化作業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20世紀 前半期부터 中國文字에 對한 外國 學者들의 意見은 漸次로 肯定的 方向으로 變하기 시작하였다. 世界語文學權威이고 中國語文研究의 大家인 瑞典人 Bernhard Karlgren은

그의 著『中國語與文學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國과 같은 큰 나라로서 이와 같이 團結할 수 있는 것은 中國의 言語와 文字가 國民을 잘 結付시키는 道具가 되었기 때문이다. 中國이 有史以來로 政治上統一을 保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文字의 能力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中國人은 이 文字를 媒介로 하여 그들의 古人과 친밀히 交際할 수 있다. 西洋人은 이것을 理解하기 困難할 것이다. 文學은 言語를 따라서 變遷하므로 世界 여러나라들은 몇 百年만 지나면 全然 새로운 文學이 된다. 그 본보기로 英人은 3~400年前의 英國文學에 대하여 그 뜻을 理解하는 자가 極히 드물다. 그러나 中國은 上下 數千年間 서로 잘 通하고 막히지 않는다. 中國人이 古代文化를 寶愛함은 그 文字의 特性이 그렇게 만든 때문이다. ……中國人이 이와같은 特別한 文字를 廢棄하기를 願하지 않음은 決코 頑固한 保守의 根性때문만이 아니다. 中國文字와 中國語의 情形은 非常히 適合하다. 萬一 中國人이 이와같은 文字를 毀棄한다면 이것은 곧 中國文化의 實在의 基礎를 破壞하여 他文化에 降伏하기를 自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孫文은 그의 全書가운데 漢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論述하였다.

“文字가 思想傳授의 仲介가 되는 것은 마치 錢幣가 物質交換의 仲介가 되는 것과 같다. 中國文字를 폐지한다면 무엇으로 古代思想을 研究할 것인가? 人類有史以來 4~5,000年の 일을 間斷없이 記錄한 것은 오직 中國文字인 漢字만이 가진 特質이므로 學者는 이 資料를 貴重하여 利用할지언정 도리어 이것을 廢止할 것을 主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強調하였다.

또 民國44年(1955) 5月 8日, 中國文字學會成立大會에서 前 教育部長 張其昀은 『中國文字與中國民族』이라는 演題로 演說함에 있어 漢字의 本質과 그 갖춘바 價値에 대하여 다음 10大優點을 들었다.

1. 歷史悠久: 漢字는 5,000年前 黃帝時代에 蒼頡이 符號만을 創始하고 其後 다시 整理하여 文字로 制定한 世界唯一의 歷史的 精神遺產이다.

2. 應用廣遠: 漢字의 世界는 書同文, 語同音의 宏遠한 規模이며 隣國인 韓國, 日本, 越南等 6億以上이 使用하는 文字로서 世界第一의 偉大的 語文系統이다.

3. 構造合理: 漢字의 構造는 科學的이고 進步的인 造字方法을 擇하고 있다.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 등의 六書에 있어 前四者는 字의 體이고 後二者는 字의 用이다. 象形, 指事는 單體字로서 하나는 具體的이고, 다른 하나는 抽象的이다. 會意, 形聲은 複體字로서 하나는 形을 보아 뜻을 알고 다른 하나는 形과 聲을 兼하고 또 그뜻이 明示되어 있다. 轉注는 다른 字로서 같은 뜻이 있고(異字同意) 假借는 一字에 몇가지 뜻이 있다. 以上 六書의 造字原理는 一般 拼音文字에 比하여 合理的이고 배우기 쉽다.

4. 義旨宏深: 漢字의 뜻을 通하여 中國文化思想의 淵源과 中國民族의 根本精神을 밝히 알 수 있다. 例하면,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等

5. 文法簡易：中國文法은 가장 簡易하여 記憶하기에 困難한 缺點이 없다.
6. 辭句精確：中國의 單字는 그 性質이 一字를 根本으로 한다. 字를 쌓아 辭를 이루고 辭를 쌓아 句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伸縮性이 豊富하여 表現하지 못할 觀念이 없고 또한 解釋할 수 없는 疑意도 없다.
7. 行列整齊：漢字는 各字가 다 個性을 가지고 있어 獨立的 單位를 이루고 있으므로 行列이 整然한 것이 그 特色이다. 散文에 있어서는 奇偶가 相生하여 疏宕錯落的 韻致가 있고 詩, 詞, 韻文 等에 있어서 對偶의 辭와 駢驪의 句는 中國文學의 獨有的 體制를 이루고 있으므로 他國 文學에서 그 比類를 볼 수 없다.
8. 書寫美觀：漢字는 甲骨文, 鍾鼎文, 篆書, 隸書로부터 楷書, 行書, 草書에 이르기까지 一種의 藝術이다. 各家의 揮毫는 氣韻이 生動하고 欣賞價値가 豊富하므로 다른 어떤 文字도 그 美觀을 따라 갈 수가 없다.
9. 內容完備：常用漢字는 約 3,000字程度이나 全部는 約 5萬餘에 達하므로 萬有를 表記하지 못할 것이 없다. 또 形聲一法은 많은 新字를 增造할 수 있다. 例하면 化學元素名詞는 形聲字의 適例이다. 따라서 漢字는 創造力이 豊富하다.
10. 思想進步：漢字는 世界 어떤 文字에 比하여도 先進이다. 自古로 無數의 大著作을 產出하여 百鍊精鋼의 光焰이 사람에게 비치는 것과 같다. 漢字로 記錄된 歷代文獻은 無盡藏의 精神資源이다. 이것을 利用하면 世界最上의 思潮를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10大優點을 가진 漢字는 中國民族의 精神的 結晶이다. 이제 中西文化를 比較하여 보면 歐洲는 로마帝國 以後로 分崩離散하여 다시 統一을 보지 못하였으나 中國은 秦漢以來로 비록 많은 喪亂을 겪었으나 마침내 그 統一的 規模를 保持한 것은 <書同文>의 力量이 그 가장 重要한 素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漢字에 대한 內外學者들의 見解는 대략 以上과 같거니와 오늘날 中國에서 實際로 실시하고 있는 漢字教育의 實態를 살펴보면 民國 24年(1935)에 國民學校 4年間 2,711字를 가르쳤으나 民國 54年(1964)에는 3,860餘字로 大幅 增加하여 가르치고 있는 實情이다.

大陸에 있어서 毛澤東은 民國 29年(1940)에 『新民主主義』中에 文字(漢文)는 一定條件下에 반드시 改革하여야 된다고 主張하고 民國 40年(1951)에 다시 文字(漢字)를 改革하여 世界文字 共同的 拼音方向으로 推進하여야 된다고 하고 다음해인 1952年에 中國文字改革研究委員會가 結成되어 郭沫若, 馬叙倫, 吳玉章 等이 毛의 主張을 敷演하여 漢字改革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세 段階를 거치는 구체적 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漢字改良 즉 漢字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漢字改換 즉 注音漢字 및 新注音漢字를 쓰도록 하는 것이고 세째는 漢字改革 즉 獨立的 拼音文字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漢字簡化 및 漢字拼音化運動에 對하여 中共內部에서도 상당數의 學者들의 反對에 直面하였다. 陶坤, 關錫, 章伯鈞, 翦伯贊, 陳

夢家, 王伯祥, 葉恭綽, 趙太侖 등은 文字改革問題 座談會 席上에서 “中國文字改革은 文字破壞 및 傳統文化抹殺行爲”라고 痛烈히 反對하였으며 瑞安林尹은 『中共文字改革與漢字前途』라는 冊의 序文에서 中共의 文字改革工作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中共이 소련의 使曠을 받아 中國을 赤化시키는데 있어 中國固有文化가 人心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 支障이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中國文字를 廢棄하여 그 根本을 挫折시킬 것을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中國文字改革委員會를 조직하여 처음은 略字를 主唱하여 六書條例를 혼란시키고 識者로 하여금 適從할 바를 모르게 하여 中國文字의 體系를 파괴하고 다음은 라틴化拼音을 이용하여 語文不通者로 하여금 形을 보고 字를 알지 못하게 하여 方言의 혼란을 일으키고 다음은 露文字母로서 中國文字를 철저히 改易하여 中華民族史를 中斷시키고 中華固有文化를 파멸시킨 후에 맑스主義와 毛澤東思想으로써 天下人을 愚昧케 하고 天下人으로 하여금 無父無君의 狀態에 빠뜨려서 마침내 禽獸가 되게하였다. 中共이 文字改革을 主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慷慨의 志士들의 異議가 있었으나 毛의 主張에 아첨하고 盲從하는 무리들이 政治暴力으로써 強制로 施行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國民들은 그 施策에 對하여 同調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10餘年來 마침내 그 계획대로 進진을 보지 못하고 점차로 停頓상태에 들어가 失敗에 돌아가고 있다」고 痛駁하였다.

回顧컨대 中國은 『五四』文化革命以來 그 目的한바 語文一致運動도 完全히 達成하지 못하고 다만 白話文이라는 <말>과는 分立된 一種의 새로운 文體를 產出한데 不過하고 中共은 그 蠻勇을 發揮하여 『라틴化新文字』 운동을 10年동안이나 展開하였으나 그것도 失敗하고 다시 『漢字拼音化方案』으로써 猪突의으로 強制使用케 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注音符號를 國際通用文字인 『로마자』로서 代替하고 수많은 略字를 만들어서 使用하는데 不過하다.

결국 中共은 文字改革이라는 漢字의 根本的改革 즉 漢字의 變質이나 廢棄를 斷念한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II. 日本에 있어서의 漢字問題

日本은 百濟의 近肖古王, 近仇首王(346~383 A. D.) 父子의 時代에 百濟로 부터 漢學을 輸入하였으니 日本에 漢字가 傳하여진 것은 約 1600年前으로 추측할 수 있다. 日本은 그후 平安朝時代에 歌學의 勃興에 따라 古語研究의 風이 일어났고 漢字의 音を 따온 萬葉假名(例: 波奈—花), 漢字의 略字로 된 假名(例: 加—カ, 須—ス) 등을 案出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후로 日本도 우리가 漢字와 한글을 混用하는 것과 같이 假名文字와 漢文字를 併用하는 二元的 語文生活을 하여 왔다. 이에 對한 反動으로 우리나라 한글人士들이 한글專用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日本에서도 漢字使用에 對하여 明治初(1870年代)부터 異論이 있기 시작하였다. 明治16年(1883) 高崎正風, 大槻文彥 등의 發起로 假名會가 結成되어 『漢字廢止, 假名文

字採用』의 旗幟를 올렸고 同17년에는 外山正一 等の 發起로 로마字會를 結成하여 國字로마자字化를 주장하였는데 當時 東京帝大關係의 新進學徒들도 이에 가담하여 歐化促進에 拍車を加하게 되어 會員이 約5~6萬名에 達하는 盛勢를 이루어 前記 假名會와 對峙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前者는 극단적 國粹主義者들의 주장이고 後者는 急進的 歐化主義者들의 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明治 38年(1905)에는 다시 國字改良運動이 일어나서 小森德之, 高尾謙一, 山下芳太郎 等を 中心으로 한 橫書片假名運動, 中村春二를 中心으로 한 平假名運動, 櫻根博士, 田中館博士 等を 中心으로 한 로마字運動이 전개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日本 文部省은 漢字節減運動의 一環으로 常用漢字를 制定하여 各 新聞社와 漢字節用協定도 하고 假名遣簡單化運動으로서 假名遣改正案 等を 發表하였다. 大正 13年(1924)에 日本 文部省은 다시 常用漢字 1963字를 選定하여 國民教育教材에 포함시킬 것을 確定하였다.

그후 昭和 12年(1937)에 漢字廢止에 關한 과격한 運動이 다시 일어났다. 즉 中原東吉(辯護士)은 現行 文字를 廢止하고 로마字(26字)를 채택할 것과 新聞, 雜誌, 看板 等은 다 橫書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骨子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教育의 經濟的 立場에서 볼때 漢字는 不適當하다. (2) 漢字는 國字로서의 任務를 完遂하지 못한다. (3) 日本語의 進전한 發展을 妨礙하려면 象形文字인 漢字를 버려야 한다. (4) 第1의 弊害를 없애는데는 日本語를 쓰는 方法을 簡單히 하는데 依하고, 第2, 第3의 缺點을 補充하는데는 日本人의 口로 말하고 귀로 듣는 音을 쓰는 文字를 採用함으로써 達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곧 로마字를 國字로 適用하자는 주장이다.

2次大戰후인 1946年, 日本國語審議會建議에 依하여 文部省은 常用漢字 1,850字를 公布하고, 1948年, 文部省은 다시 常用漢字表를 公布하였는데 거기에는 常用漢字 1850字가운데서 881字를 小學校 教科書에 넣어서 편찬하고 이것을 教育漢字라고 指稱하였으며, 1954年, 文部省은 로마字化的 統一方案을 公布하여 小學校 4年부터 6년까지 日本語 로마字式 表記 練習을 시키도록 하였다.

1970年부터 小學校 教科書를 改定하여 종래에 6年間 教育하던 漢字 881字에 115字를 증가하여 996字를 教育漢字로 하였다. 現在 日本의 教育漢字는 大幅 증가되어서 小學校는 996字, 中學校는 969字, 總計 1,965字를 教育漢字로 가르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日本의 新聞, 雜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漢字數는 위의 教育漢字보다 훨씬 많은 것이며 日本人의 姓名, 地名, 看板 기타 各種 出版物에 있어 中學校보다 더 많은 漢字를 쓰고 있음은 日本을 여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目覩하고 是認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日本의 小·中學校에서 以上과 같이 漢字를 증가시켜서 가르치고 있다하여 그들이 國語나 外國語教育을 소홀히 하거나 科學教育을 등한히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漢字문제를 놓고 近1世紀 동안 많은 專門의 研究에 依한 主張이 百出하였음은 이상 列學한 바와 같거니와 그것은 學者나 文化人의 語文에 對한 一家見이므로 관대히 받아 들이고는 있으나 그들의 傳統文化를 保全하면서 現代 科學文明을 흡수하고 啓發하는데 있어 漢字는 知能 啓發과 創作力 增大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語文政策에 對하여 편파적인 見解에 기울어지지 않고, 가장 公正하고 냉철한 立場에서 民族文化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장래를 展望하면서 一朝一夕에 과격한 文字革命이라는 方法을 取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漢字의 傳來와 訓民正音 創製의 本旨

三國史記 高句麗本紀를 보면 小獸林王(17代) 2年(372A. D.)에 秦王符堅이 使臣과 浮屠順道와 佛像 및 經文을 보내왔다 하고, 또 同年에 大學을 세워 子弟를 교육하였다고 하며 嬰陽王(26代) 11年(600A. D.)條를 보면 王은 大學博士 李文眞에게 詔勅을 내려서 古史를 간추려 新集五卷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國初에 文字를 始用할 때에 或人이 記事百卷을 만들어 留記라고 이름을 부친 것을 그 때에 刪修한 것이라고 하였다.

高句麗는 漢의 郡縣인 玄菟의 故地로 부터 일어난 나라인 것 만큼, 일찍부터 北中國과 文化交流가 빈번하게 되어 儒佛 兩敎의 漢文經典을 輸入하여 당시 貴族階級이나 知識層의 子弟를 위한 교육기관인 大學에서 教授하였다고 보는데, 國初부터 漢字를 教育하였다고만 하고 어느 때부터 漢字가 傳來되었다는 明確한 記錄은 없다. 그런데 高句麗의 始祖 東明聖王의 開國紀元은 紀元前 36年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 漢字가 傳來된 것은 約 2,000年前으로 보아서 大差가 없을 것이다. 高句麗가 漢字를 輸入한 것은 儒佛 兩敎의 經典을 解讀할 目的이었음은 틀림없는 事實이나, 이로 因하여 中國의 諸般文化를 輸入하여 찬란한 文化를 發展시켜 왔으며 또 高句麗의 流民과 辰韓 및 扶餘 등의 部落民으로 構成된 百濟는 高句麗와 人접하여 있었던 만큼 그의 文化에 있어 高句麗의 影響을 받게 됨은 自然의 趨勢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의 古事記, 日本書紀, 續日本紀, 古語拾遺 등의 기록을 보면, 應神, 仁德 兩朝때에 百濟로 부터 阿直岐, 博士王仁 등이 千字文과 論語十卷을 가지고 渡日하여 菟道稚郎子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때는 百濟의 近肖古王, 近仇首王(346~383A. D.) 父子의 時代에 해당하고, 또 武寧王 13年(513A. D.)에 百濟는 五經博士 段楊爾를, 同 16年에는 五經博士 高安茂를 日本에 派遣하고 그 후 계속하여 宗教, 美術, 工藝, 音樂, 醫藥, 卜筮, 天文, 地理 등에 관한 書籍과 學者 및 기술자를 日本에 보내어 日本의 所謂 <飛鳥時代>의 文明을 成就하는데 절대적인 寄與를 하였다. 그리고 보면 百濟는 漢字를 通하여 自國은 물론, 異國文化에 까지 큰 貢獻을 하였으며, 百濟가 漢字를 輸入하여 使用하기 시작한 때도 高句麗와 비슷한 時代였다고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新羅는 弁韓, 辰韓의 땅에서 일어난 나라로서, 大陸文化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麗濟二國에 比하여 뒤떨어진 感이 있으나, 智證王(22代), 法興王(23代) 兩朝로부터 漢式名號와 制度를 採用하기 시작하고 太宗武烈王 7年(660A. D.) 唐과 연합하여 百濟를 討滅하고 文武王 8年(668A. D.) 역시 唐과 연합하여 高句麗를 滅한 후, 麗濟舊地에 據하여 唐의 勢力을 驅逐하고, 統一國家를 形成한 후로 부터 다시 唐과의 國交를 회복하여 使節의 來往과 留學生, 求法僧의 來往이 빈번하여 본격적으로 中國文化를 직접 받아 들이게 되어 漢字로 된 中國의 經籍은 무엇이나 輸入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漢字는 原來 單音節語인 中國語를 表記하는 文字이므로 多綴語인 우리 國語로 表記하는 데는 상당한 難點이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리하여 新羅로부터, 吏讀體가 始作되고 有名한 薛聰이 이것을 完成하였다고 하는데, 吏讀는 李朝初에 大明律直解로써 完成되어 李朝末期까지 사용하여 왔다.

이 吏讀體라는 것은 語彙는 漢字 그대로 쓰고 助詞, 補助詞만을 漢字의 音과 訓을 利用하여 表記하는 것이다. 助詞는 주로 音借表記를 하고 補助詞는 語幹은 訓借, 語尾는 音借로 表記하는 形式인데 이 吏讀와 近似한 것으로 口訣(토)이라는 것이 있어 漢文의 意味가 우리 말로 잘 通할 수 있도록 文中에 插入하여 漢文을 읽는데 사용하여 왔다. 이 吏讀로 된 文學作品으로는 『鄉歌』가 그 代表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高麗 5百年間은 漢唐流의 訓話, 詩歌, 文章의 學風이 一世를 風靡하였고 學校制度, 學科規定, 科學科目 등은 다 唐制를 모방하였으므로 文物 全般에 걸쳐 漢字漢文 一色이었다.

李朝 世宗朝에 이르러 宋代 性理學中の 聲音論과 中國音韻學의 影響을 받아 漢字音訓에 對한 관심이 커졌다. 世宗의 訓民正音御製에 보면 「우리나라의 語音이 中國과 달라서 漢字와 그 뜻이 서로 流通하지 못하므로 미련한 백성이 말하려고 하나 그 참 뜻을 충분히 發表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字를 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익히기 쉽고, 일상생활에 편리케 하려고 한다」고 그 趣旨를 천명하였으며 鄭麟趾의 訓民正音 序에 보면 「新羅의 薛聰이 처음으로 吏讀를 지어 그것으로써 官府와 民間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다 假字이므로 그 뜻이 어려워서 말의 萬分의 一도 通할 수 없으므로 이제 訓民正音を 御製하였는데 正音 28字는 轉換이 無窮하고, 簡而要, 精而通하여 총명한 者는 하루아침에 通할 수 있고 미련한 者라도 10日안에 通할 수 있어 師父의 敎를 기다리지 않아도 해득할 수 있다」고 極讚하였다.

그런데 이 訓民正音이 頒布되기 前인 世宗 26年(1444)에 集賢殿副提學 崔萬理 등은 新文字 創製에 對하여 反對하는 長文의 上疏를 올렸다. 그 要旨를 말하면 「우리나라는 至誠으로 事大하고 華制를 一遵하고 있는데 이제 古制를 反對하고 새 文字를 지음은 事大慕華上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對한 世宗의 批答에 「너희들이 薛聰의 吏讀는 백성의 편리를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백성을 위하여 지은 諺文은 옳지 않다고 하여 그 君上의 하는 일을 비난함은 무슨 까닭인가? 또 너희들이 韻書를 아는가? 또 너희들이 四聲七音字母

가 얼마가 되는지 아는가? 만일 내가 그 韻書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그 諫疏를 拒否하였다.

또 世宗 26年 2月에는 『韻會』를 번역하고 同 29年 9月에는 『東國正韻』을 편찬하고 世宗 末年으로 부터 端宗 初年에 이르기까지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攻』을 편찬하였다. 世宗은 이와같은 韻書들을 정리하여 漢字音의 혼란을 막는 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使命으로 여겼다. 『洪武正韻譯訓』에 對한 申叔舟의 序에 「우리 世宗 莊憲大王께서 韻學에 留意하사 깊이 연구하신 結果로 訓民正音 若干字를 創製하셨다」는 것을 보아 世宗이 漢字音韻學研究의 結果로 訓民正音を 創製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世宗이 訓民正音を 創製한 目的은 첫째로, 당시 中國의 漢字音과 우리나라의 漢字音과의 隔差로 생기는 漢字音의 혼란을 막아 그 바른音を 내게 한다는 뜻으로 正音이라고命名하였으며, 둘째로 이 正音에 依하여 漢文을 모르는 愚民을 가르치고 또 漢文을 읽고 쓰는데 편리를 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들을 보아 世宗의 正音 創製는 漢文을 더 잘 읽고 더 잘 理解시키려는데 그 眞意가 있는 것이고 正音만을 專用함으로써 漢文을 全廢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한글 人士들이 世宗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世宗의 眞意에 어긋나는 한글專用, 漢字廢止의 主張은 옳지 않다고 본다.

訓民正音은 頒布 후, 그 簡便한 것을 活用하여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등의 制作, 四書三經諺解, 杜詩諺解 등 무수한 漢籍을 푸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文學作品으로는 時調, 歌辭, 小說 類를 發展시켰으며, 甲午更張후로는 開化詩, 散文學, 英雄傳, 愛情小說 등의 發展을 보았는데 이들은 그 內容과 形式에 있어서 漢字語와 긴밀한 관련성을 띤 作品들이었다.

이것을 보아 當初부터 漢字와 正音은 決코 相剋的 對立關係에 있던 것이 아니고 互惠的 表裏關係를 가지고 우리의 意思表現을 圓滑히 하고 우리의 文化生活에 풍부한 內容을 提供하여 온 事實을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IV. 開化期와 日帝治下의 漢字와 한글

1894年(甲午) 高宗이 勅令을 내려 「모든 法律과 命令을 國文으로써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은 國漢文을 混用하라」고 한데 따라서 官報가 國漢文體로 發行되고 이듬해에 教育立國詔書가 國漢文으로 내려졌다. 그리하여 종래에 純漢文으로 기록하던 모든 書式은 一變하게 되고 言文一致運動이 燎原의 불길과 같이 일어났다. 당시의 教科書, 독립신문, 皇城新聞, 帝國新聞 등은 國漢文 또는 純國文體로 發刊되어 自國語에 對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이와같이 熱烈했던 現代化運動도 15년도 채 가지 못하여, 나라는 마침내 日帝의 隸屬國이 되고 말았다(1910). 그러나 3·1運動을 계기로 하여 民族意識이 高調되어 國語에 對한 研究가 더욱 白熱化하게 되고 國語를 사랑하는 人士들의 계속적 努力에 依하여 우리말 文典만도 兪吉濬의 『朝鮮

文典』, 周時經의 『國語文典音學』等 30餘種이나 刊行되었으며 同時에 漢字를 우리말로 풀어 놓은 漢字辭典도 池錫永의 『字典釋要』를 비롯하여 몇개의 漢字辭書도 刊行되었다.

日帝가 36年間 植民地教育을 實施함에 있어 日本語는 國語라 하고 우리 한글은 朝鮮語라 하여 學校教科目中에 適當 1時間 程度 넣어서 가르쳐 오다가 中日戰爭을 일으킴으로 부터 그들의 斷末魔的 暴學로, 겨우 연명하여 오던 朝鮮語教育도 廢止해 버리고, 日語常用을 強制함으로써 韓國語抹殺政策을 斷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같은 억압통치하에서도 漢字를 섞어서 發刊된 政治, 經濟, 法律, 哲學, 文學, 科學 等の 書籍에 依하여 現代文化를 흡수할 수 있었으며, 新聞으로는 『東亞』 『朝鮮』等, 雜誌로는 『開闢』 『東光』等を 通하여 民族意識과 文化向上에 覺醒을 促進시켜 왔다. 그런데 그 당시, 新聞雜誌의 體裁를 보면 대체로 오늘의 그것과 같이 社說, 政治, 經濟 等 欄은 國漢文混用으로 하고 3面 社會記事와 小說 等은 純 한글로 記載함으로써 全 民衆의 知識向上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解放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人士들은 대체로 이와같은 語文環境에서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다.

회고컨대, 甲午更張(1894)으로부터 大韓帝國의 終末(1910)까지는 한글을 연구하고 사용하므로써 종래의 漢文 위주의 慕華思想과 事大根性을 拂拭하고 自主獨立의 實을 올리려는 運動期間이었고, 日帝統治의 암흑시대로 부터 解放(1910~1945)까지의 한글運動은 日帝의 羈絆으로부터 해방되려는 民族운동이며 愛國운동이었다. 그리하여 開化期 이후 約 50年間은 한글을 通한 獨立운동과 民族운동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期間中에 特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日帝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글연구를 꾸준히 추진한 朝鮮語學會의 업적과 그 때문에 獄死와 獄苦를 당한 人士들의 苦節이다. 더욱이 朝鮮語學會 學者들이 心血을 쏟아부은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은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서 한글의 金子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1929年 10월에 發起되어 다음해인 1930年 1월에 着手되었는데 그 間에 많은 迂回曲折을 겪으면서도 줄곧 推進하여, 着手한지 27年후인 1957年 10월에 全6冊, 總 語彙 164,000餘에 이르는 획기적 大事業을 성취하였다. 이제 다시 말하거니와 大韓帝國時代의 한글 운동은 淸帝國에 對한 反抗운동이었고, 韓日合併후의 한글운동은 日本帝國에 對한 反抗운동이었으므로, 이 두 期間中에는 한글과 民族運動과는 不可分의 관계에 있었고 한글연구는 民族自主精神과 獨立운동이 直結되고 있었으므로 한글때문에 苦楚를 당한 人士들에 對하여 누구나 다 존경의 念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5年 8月 15日 해방된 그 날 부터는 과거의 배척의 대상이었던 淸帝나 日帝는 다 물러났으므로 우리의 反抗대상은 제거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世界에 門戶를 활짝 열어 놓고 가장 公正한 立場에서 가장 普遍的인 教育政策과 語文政策을 樹立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文教政策은 「自主性 強調과 우리 것을 도로 찾는다는 名分과 한글이 世界에서

제 일 훌륭한 글이라」는 一部 한글主義 人士들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主張에 좌우되어 一舉에 漢字抹殺教育을 斷行한 結果, 그 政策을 施行한 25年間に 數百萬에 달하는 教育받은 文盲을 輩出하는 可痛한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V. 表意文字와 表音文字

漢字는 表意文字이고 한글은 表音文字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常識이다.

그런데 한글專用主張이 이처럼 得勢하게 된 原因은 가장 쉽고도 平凡한 이 原理를 가볍게 보아 넘김으로써 일어나는 現象이라 보고 表意文字와 表音文字와의 差異點을 分析 檢討하려 한다.

表意文字인 漢字의 경우, <中>을 써 놓고 보면 이글자는 <가운데>라는 뜻이 明確히 表現되어 形象의 性能을 完全히 發揮하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人이나 韓國人이 <中>字의 中國發音은 모른다쳐도 그것이 <가운데>라는 뜻은 다 알 수 있어 意思疏通이 可能케 된다. 그런데 <中>의 發音인 <중>에는 뜻이 없다. 만일 뜻이 있다면 <重> <仲> 등의 뜻도 同時に 알 수 있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을 보아 단 한개의 <중>이라는 發音에는 아무런 뜻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中夜>, <中心>, <中秋> 등은 말이 되나 한글로 <중밤>, <중마음>, <중가을> 등은 말이 아니된다. 이와같이 中國人이 使用하고 있는 四聲原則을 따르지 않는 우리 語文에 있어서 漢字는 視覺을 通하여 認識하는 形象에는 뜻이 있으나 聽覺을 통한 音聲에는 뜻이 없다.

다음 表音文字인 한글의 경우, <가>라는 글자를 볼 때에(視覺) 그것이 곧 소리(聽覺)로 交替되어 腦에 傳達됨으로써 <가>를 認識하나 <가>字 그 自體에는 아무런 뜻도 없다. 즉 <가>字는 <가>라는 소리 外에는 뜻이 없다. 한글의 視覺的 要素는 聽覺的 要素에 吸收되어 하나로 合하여 버림으로써 表音文字에 있어 눈으로 보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의 代理行爲를 하는 것에 不過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以上 總括하여 다시 論하면 表意文字인 漢字에 있어 字形을 버리고 그 代身에 表音文字인 한글을 代入시켜 <中>을 쓸 자리에 <중>을 써 놓으면 전연 모를 글이 되거나, 글이 된다고 쳐도 애매한 것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要컨대 한글은 音語이므로 意思가 聲音으로 表現되어 聽覺을 通하여 腦에 傳達되고 漢字는 視語이므로 意思가 字形으로 表示되어 視覺을 通하여 腦에 傳達되는 것이 原則이다.

한글人士들은 이와같은 文字生命의 原則을 度外視하고 視覺文字인 漢字를 聽覺文字인 한글로 바꿔놓고, 여기에서 不可避的으로 派生되는 數多한 曖昧模糊한 文句에 對하여 言語環境과 文脈 등을 짐작하여 그 뜻을 識別할 수 있다고 強辯하고 있다.

이와같은 主張이 계속 貫徹된다면, 結果的으로 우리 民族은 語文의 混亂속에서 思考의 混

迷, 表現의 不確實 等 一切의 文化生活에 있어 後退現象을 招來할 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이다.

VI. 同音異義語에 對하여

世界言語를 大別하면 大략 單音節語와 複音節語로 나눌 수 있다. 우리말, 日本語, 歐洲語 등은 複音節語系에 屬하고, 中國語는 單音節語系에 屬한다. 例를 들면 우리말의 名詞로서 <호랑이(虎)>는 日本語로는 <도라>, 英語로는 <타이거>이고, 中國語로는 <후>이다. 또 우리말의 形容詞로서 <아름답다(美)>라는 말은 日本語로 <기레이>, 英語는 <뷰티풀>이고, 中國語로는 <메>이다.

물론 이 區分은 絶對的인 것은 아니다. 單音節語系에도 複音節語가 있고, 複音節語系에도 單音節語가 있다. 다만 中國語는 全般的으로 單音節로 되어있으나, 이 單音節語가 複音節語의 形式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個個의 뜻을 保有하면서 어떤 融合된 다른 개념을 성립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例를 들면 政府라는 複音節語는 政治하는 官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中國語는 대체로 한 個의 音節이 한 個의 意味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이 제한된 音節語를 가지고 無限의 事象을 표현하게 되므로 同音異義를 표현하는 어떤 規制가 마련되어 마침내 中國은 소위 四聲(平聲, 上聲, 去聲, 入聲)이라고 부르는 聲音學이 發達되었다. 물론 이 四聲에는 漢音과 吳音의 區別이 있다. 李朝 正祖時 御命으로 편찬한 『御定奎章全韻』을 보면 四聲의 四部類의 代表字 106字에 所屬한 漢字는 13,300餘字에 達하고 있다. 그런데 中國에 있어서는 이 音節語發音이 高低, 長短, 強弱 等に 依하여 그 뜻이 區別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四聲의 區別이 確實치 않고 거의 똑같은 음으로 發音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말 큰사전』에 收錄된 우리말 낱말의 數는 總計 164,000餘인데 그 중에 純 우리말은 74,600餘이고, 漢字語는 85,500餘에 達하고 보니 결국 우리말 對 漢字語의 비율을 46.6對 53.4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漢字語의 約 80% 이상이 同音異義語이다. 이것이 한글專用に 있어 最大의 난관인데 이 난관을 덜어놓고 使用頻度, 習慣性, 文脈의 前後관계 等に 依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크나 큰 억지와 無理가 생기게 된다.

다음 A表는 漢字를 넣은 辭典이므로 같은 <가장>이 9個가 되어도 同音異義를 判別할 수 있으나, 만일 한글專용完成後에 漢字를 말끔히 除去해 버린 B表의 경우를 상상한다면 어떤 天才라도 그것을 判別하여 일일이 記憶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어대사전』에 <사>欄을 보면 史, 四, 師, 司, 斜 等の 무려 70餘의 同音異義語가 있는데, 그것으로 構成된 單語를 어떻게 일일이 區別하여 記憶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은 우리말 사전에 있는 16餘萬의 낱말에서 가장 적은 部分을 摘出하여 例示한 것 뿐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보아 同音異義語가 許多한 우리 글의 表記에 있어서 그 亂脈現象을 避하려면 漢字使用이 絶對的인 要請이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A 表 『국어대사전』 p.28.

- 가장¹ (架藏)명 시령위에 소장(所藏)함. (주로 책에 대하여 말함. ——하다. 타 하면)
- 가장² (家長)명 ①집안의 어른, 호주, 가구주. ②남편
- 가장³ (家狀)명 ①조상(祖上)의 행위에 관한 사사기록. ②한집안 조상의 행장(行狀)
- 가장⁴ (家藏)명 자기 집에 간직하여둠, 또는 그 물건. ——하다. 타 하면
- 가장⁵ (假將)명 (고제) 전장(戰場)에서 어느 장수의 결원이 있을 때, 주장(主將)의 명령으로 임시로 그 직무를 맡아보는 장수.
- 가장⁶ (假葬)명 ①임시로 묻어 두는 일. ②임시권도로 장사지내는 일. ③ 어린아이의 시체를 묻어 두는 일. ——하다. 타 하면
- 가장⁷ (假裝)명 ①가면으로 꾸밈, 거짓으로 꾸미는 일. ②임시로 변장(變裝)함. ——타 자 하면
- 가장⁸ (嘉獎)명 칭찬하여 권장(勸獎)함. ——하다. 타 하면
- 가장⁹ 부 제일, 여럿 가운데 어느것 보다도 더 이것이 ——좋다.

B 表 將來의 國語辭典(한글專用 完成後)

- 가장¹ 명 시령위에 소장함. (주로 책에 대하여 말함. ——하다. 타 하면)
- 가장² 명 ①집안의 어른, 호주, 가구주. ②남편
- 가장³ 명 ①조상의 행위에 관한 사사기록. ②한 집안 조상의 행장.
- 가장⁴ 명 자기 집에 간직하여 둠, 또는 그 물건. ——하다. 타 하면
- 가장⁵ 명 (고제) 전장에서 어느 장수의 결원이 있을 때, 주장의 명령으로 임시로 그 직무를 맡아 보는 장수.
- 가장⁶ 명 ①임시로 묻어두는 일. ② 임시권도로 장사 지내는 일. ③어린아이의 시체를 묻어 두는 일. ——하다 타 하면
- 가장⁷ 명 ①가면으로 꾸밈, 거짓으로 꾸미는 일. ②임시로 변장함. —— 타 자 하면
- 가장⁸ 명 칭찬하여 권장함. ——하다. 타 하면
- 가장⁹ 부 제일, 여럿가운데 어느것 보다도 더 이것이——좋다.

VII. 主體性確立을 위한 한글專用說에 對하여

한글人士들은 한글을 專用하고 漢字를 廢止함으로써만 겨레의 主體性을 確立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文化의 領域에 있어서 排他的 姿勢는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 大院君도 애국심은 있었으나 排他的인 鎖國政策때문에 나라를 破局으로 몰아 넣었고, 崔萬理는 忠臣임은 틀림없었으나, 漢字만 쓸 것을 주장하고 正音創製를 反對한 편파적 主張을 한것이 잘못이다. 오늘의 한글人士들은 한글만 쓰고 漢字를 廢止하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文化를 害치는 偏파적 見解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世界의 文化가 國境을 초월하여 서로 交流하고 있는 今日, 우리 말만 쓰자는 主張은 時代潮流에 逆行하는 主張이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우리의 生活 주변에는 수 많은 外國語가 氾濫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뿐 아니고 세계 각국의 자연 趨勢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外國語를 대강 열거한다면, <가스메라>, <다바고>는 폴투갈語이고, <메리야스>는 서반아語이고, <고무, 가라스, 뽕푸, 쯔푸, 란도셀>은 화란語이고, <노트, 펜, 나이프, 라디오, 텔레비>는 英語이다. 그

뿐 아니라, 商店看板, 旅館, 茶房名 등에 있어 形形色色의 外國語가 氾濫하고 있음은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官公文書를 보면 漢字音을 한글로 바꾸어 쓴데 불과하다. 이것은 한글人士들이 처음에 주장하던 改語式 한글에서 音記式 한글로 轉向한 實證이다. 音記式 한글을 쓰는데 무슨 主體性和 獨自性을 云云할 것인가? 朴定緒氏는 이것을 「가짜 한글專用」이라고 規定하였다. 만일 기어코 모든 것을 한글化하려면 우리의 姓名부터 漢字를 基本으로 하는 것을 排除하고 單 形式의 이름을 지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西洋式 이름을 本 따게 되므로 主體性을 確立하려는 目的과는 背馳되는 作業이 될 것이다. 결국 한글專用은 外形만 漢字를 隱蔽하자는 手法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筆者는 몇해 前, 洋行過次에 잠시 日本에 들러 書街를 둘러 보았는데 一切의 書籍은 물론, 商店의 看板, 문패 등은 3~40年前과 조금도 다르없이 漢字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筆者는 日本人들은 主體性이 없는 民族이라는 느낌이 없었고 外國人들도 筆者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一切의 公文書와 거리의 看板을 한글一色으로 制約하였지만, 그것을 보는 外國人들이 果然 한국사람들은 主體意識이 강한 民族이라고 감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英國, 獨逸, 佛蘭西, 露西亞人들은 애급, 페니키아, 히랍, 로마인의 所作인 알파벳을 가지고 그들의 言語를 形成하고 있지 않은가?

수천년의 文化遺産이고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와는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漢字를 逐出하려는 騷動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平地風波이며 奇想天外의 處事가 아닐 수 없다.

겨레의 自主性確立은 漢字를 廢止하고 한글만 쓰는데 있지 않고, 一切의 不正과 腐敗를 一掃하고 經濟를 부흥시켜서 남의 나라에 빚을 지지 않고 經濟적으로 自立하며 軍備를 充實히 하여 침략자가 엮보지 못하게 하고, 國民教育을 普及向上시켜 文化傳統을 계승 발전시키므로써 文化民族이라는 矜持를 昂揚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VIII. 漢字는 國字가 아니라는 主張에 對하여

우리나라 民法 第2章에 占有權을 規定한 條項中 第192條와 第204條를 보면 物건을 事實上 지배하는 者에 對한 請求權은 侵奪을 當한 날로 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떤 物건을 占有한 後 아무런 返還請求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그 物건의 所有權을 認定한다는 規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漢字를 占有한지는 2,000餘年이 되는데 오늘에 와서 우리가 占有하고 있는 漢字를 도로 찾아가려는 者도 없거니와, 이와 같이 오랜 由緒를 가진 占有物을 이제 와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主張은 좀 어색하여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文化는 예나 오늘이나 占有權을 主張하는 者도 없고 또 빼앗으려는 者도 없는 世界的 共有物이다. 文化는 마치 물이 낮

은 데로 흐르고 空氣가 氣流의 稀薄한 데로 流動하는 것과 같이 높은 文化는 낮은 文化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自然의 趨勢이고 어떤 政治의 威力으로나 商利의 계산으로 빼앗거나 주거나 하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한 文化를 創始한 民族도 위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發展시키는 民族은 더 위대하다. 자기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배우지도 쓰지도 말자는 主張은 極히 閉鎖的이며 偏頗的인 見解이다. 만일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몰아내고 우리 것만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그 生活을 營爲할 수 없을 것이다.

算數字는 아라비아에서 發明된 것이나 오늘은 全世界가 다 쓰고 있고, 알파벳은 埃及, 페니키아인이 案出한 것이나 히랍, 로마를 거쳐 오늘날 歐美各國이 다 쓰고 있고 漢字는 漢民族에 依하여 創始한 文字로서 오늘날 아시아 9億人口가 쓰고 있는 文字이다. 우리 先人들이 이 文字를 輸入하여 우리의 文化를 創造하고 發展시켰으며 그 혜택을 現在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제와서 새삼스레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버린다면 과거 半萬年間に 있어 우리 先人들이 漢字로 기록하여 놓은 典籍, 즉 政治, 經濟, 哲學, 宗教, 歷史, 文學, 社會, 藝術, 기타 모든 書籍을 無로 돌리라는 말인가? 만일 우리가 이 文化 遺産을 버린다면 무엇으로써 文化人의 矜持를 삼을 것인가? 한글人士들은 그것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主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이다. 왜냐하면 純粹한 우리 한글로는 그 많은 古典들을 당장에 우리가 잘 인식할만한 程度로 번역해낼 도리가 없다. 그 까닭은 漢字는 한글이 發明되기 約 1,500~1,600年前에 輸入되어 學術的인 高等概念을 表現할 수 없었던 우리 言語世界를 侵蝕하였으므로 우리 固有語는 卑近한 日常用語에 국한된 것 뿐이고 學術用語는 다 漢字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로 造語를 하면 되지않겠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25年間 試圖하여 보았으나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中國에 있어서는 佛敎가 後漢 明帝永平間에 西域으로부터 輸入되었을 때, 이미 漢字는 高等概念을 充分히 表現할 수 있을 程度로 發達되어 있었으므로, 梵語로 된 佛經을 一旦 漢文字로 번역한 후로는 梵語를 다시 習得할 必要가 없게 되었다.

日本의 경우, 約 1世紀前에 西洋의 書籍을 輸入하여 그들의 假名에 漢字를 섞어서 번역하여 읽었으므로 短時日內에 西洋의 文化를 흡수하였고, 우리도 日人들이 번역한 學術書籍을 通하여 世界의 學術을 연구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漢字로 번역한 書籍의 혜택을 입었던 事實을 누가 否認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말은 固有語와 漢字語와의 二大要素로 구성되어 그 比率는 4:6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면 漢字는 2千餘年前에 우리나라에 移來하여 完全히 우리에게 同化된 文字이고 남의 글이 아닌 우리 글이다.

그러므로 漢字의 傳統과 價值性과 效率性을 고려하여 持續의 努力으로 그 發展과 活用을 企圖할지언정, 決코 偏頗的인 感情이나 行政의 權力으로 그 存廢를 決定할 바는 못된다고 본다.

IX. 漢字難解說에 對하여

漢字는 畫數도 복잡하고 數量도 많으므로 一見 쓰기 어렵고 배우기 힘든 것 같이 보인다. 사실 漢字의 畫數로 말하면 一畫으로부터 五十畫이나 되는 字도 있고 字數로 말하면 時代의 遷移에 따라 漸次 增加한 趨勢를 보이고 있다. 漢字를 收錄한 字典類를 時代別로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訓纂篇 5,340字(漢·揚雄), (2) 說文解字 9,353字(漢·許慎), (3) 字林 12,824字(晉·呂忱), (4) 廣雅 18,150字(後魏·張揖), (5) 玉篇 22,726字(梁·顧野王), (6) 廣韻 26,194字(唐·陳彭年), (7) 類篇 31,319字(宋·王洙, 胡宿), (8) 正字通 33,440字(明·張子烈), (9) 康熙字典 42,174字(清·陳廷敬等), (10) 中華大字典 44,908字(民國·中華書局)

한글人士들이 言必稱 漢字는 어렵고 字數가 많다는 主張은 위와같은 것을 보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글자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時代의 변천에 따라 自然淘汰의 法則에 依하여 增加도 되고 消滅도 되는 하나의 生命體이므로 漢字도 그 法則에 依하여 增減되어왔다. 아무리 簡單한 字라도 現在 通用되지않는 字도 있고(例: 父字 따위) 또 아무리 複雜한 字라도 오래 그 生命이 保存되는 字도 있다(例: 龜字 따위).

오늘에 있어 漢字를 가르쳐야 한다는 主張은 옛날 우리 先人들처럼 漢字를 배워 詩賦, 文章 其他 日常書簡文에 이르기까지 漢文一色化하려는 復古主義가 아님은 再論할 必要도 없다. 從來의 漢字가 어렵다는 것은 漢字自體가 어렵다는 것보다 漢字로 엮어 놓은 漢文이 어렵다는 말이다. 1957年 11月 文教部가 制定한 常用漢字 1,300字를 가지고 國民學校 3學年부터 6學年까지 4年間 每日一字씩 學習시키면 넉넉하다. 그런데 우리 韓漢辭典에 常用漢字 1,300字를 서로 結合시켜 날말로 된 것을 보면 54,400餘에 達하고 있다. 이 常用漢字外에 約 2,700字를 더하여 約 4千字만 記憶한다면 어떤 古典도 解讀할 수 있다. 英語로 된 學術的 原書를 보려면 적어도 4~5萬個의 單語를 기억하여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最高 4萬餘의 漢字는 대체로 生命을 잃은 廢字에 不過하고 실제로 生命을 가지고 있는 字는 그 10分之1도 될 가 말까 한 程度이다. 아무리 漢學大家라 할지라도 現行 우리 漢字玉篇에 收錄된 約 2萬字中에서 4分之1가량을 아는 程度가 아닐까 推想된다. 그러면 漢字를 記憶하는 것과 英語單語를 記憶하는 것을 比較할 때 그 어느 것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漢字는 各字가 一音一義를 가지고 있으므로 宇宙의 萬象과 人間의 萬事를 表現하는데 無數의 漢字를 記憶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이 생각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漢字는 無量의 造語能力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그때 그때의 必要에 따라 無窮無盡의 語彙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그 特色이다.

英語는 2000年 동안에 그 語彙數가 60~70萬으로 增加되었음에 反하여 漢字는 3000年 동안

에 上記한 바와 같이 不過 4萬餘字로 增加되었으나 英語의 60~70萬 單語가 表現하는 役割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複雜多端한 現代事態를 남김없이 記錄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한글人士들이 漢字는 어려우니 가르치지 말자는 主張에는 세 가지 重大한 錯誤가 있다. 그 하나는 精神的 姿勢에 對한 錯誤이다. 必要的 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워서도 勇氣를 내어서 그것을 克服하려는 氣概를 키워야 한다. 어려운 것은 回避하고 쉬운 것만 찾으려는 마음의 姿勢를 가진 우리 靑少年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價値있는 것으로서 努力이 없이 成就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數學, 物理, 化學, 英語 등은 다 어려운 것이나 그것이 必要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이다. 땀과 눈물의 結晶體가 成功이라면 쉬운 것만 찾아 다니는 우리 靑少年들의 姿勢, 즉, 魚網鴻羅, 一獲千金의 射倖心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둘째로 漢字를 兒童들에게 賦課함으로써 兒童들의 心身發育上 支障이 된다는 主張이다. 이 主張은 一見 兒童들을 사랑하는 듯하나 實은 兒童들을 害치는 主張이다. 學齡期의 兒童의 精神作用은 같고 닦을수록 빛나는 쇠붙이와 같아서 쓰면 쓸수록 發達할 수 있는 潛在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로 漢字는 兒童들의 推理力과 記憶力에 活素를 주고 國語의 基礎가 된다는 사실을 한글人士들은 外面하고 漢字는 다른 學科와는 전혀 關係가 없는 것으로서 다만 兒童들에게 헛 수고를 賦課한다는 생각은 크나 큰 잘못이다.

漢字는 또 表意性能이 豊富하므로 畫數가 복잡할 수록 兒童들은 더 잘 記憶하고 비교적 學科成績이 뛰어나지 못하는 兒童이 오히려 더 잘 記憶하는 傾向도 있다고 한다. 이제 筆者는 5歲 幼稚園兒童들에 對하여 다음 글자들을 제시하여 十分間에 잘 記憶해 내는 사실을 실제 實驗을 通하여 알게 되었다. “山, 登, 天, 高, 風, 草, 木, 鳥, 花, 石” 等 10字를 한 字씩 종이에 써서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山에 올라가서 보니 하늘은 높고 바람은 불어오고 거기 풀, 나무, 새, 꽃, 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2~3回 반복하였더니 그들은 다 글자의 뜻을 알아 맞추는 것을 보았다. 그 反面, 우리 한글로 “산, 올라가다, 하늘, 높다, 바람, 풀, 나무, 새, 꽃, 들을 써서 다시 前의 方法대로 실시하여 보았더니 漢字보다는 4倍 以上의 時間이 걸려서야 겨우 알아내는 것을 보았다.

이 사실들은 學齡兒童들에게 漢字를 가르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본다.

X. 二重語文使用 不合理說에 對하여

한글人士들은 과거의 우리나라 知識人들은 漢字語와 한글의 二重言語를 使用하는 不合理한 生活를 하였으므로, 今후 우리는 우리 말을 갖고 닦아서 순수한 우리 말만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主張이 과연 正當하며 그 企圖대로 成就될 것인가? 이것도 거의 實現 不可

能에 屬하는 主張이다.

우리 民族은 본시 東夷族으로서 通古斯 또는 蒙古族과도 近似하고 言語는 우랄 알타이語系에 所屬되어 터어키語, 헝가리語와 近似한 點이 있고, 蒙古語와 女眞語와는 더욱 近似한 點이 많다. 이와 같이 言語의 分化作用은 民族移動과 交流에 따라서 不可避의 現象이라 할 수 있으며, 소위 인도 유럽어系 言語族의 分化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것을 類別하면 (1) 게르만語系——獨, 英, 和蘭, 埃地利, 白耳義, 노르웨이, 瑞典, 丁抹, (2) 켈트語系——愛蘭, 스코틀랜드, (3) 라틴語系——佛, 伊, 스페인, 폴투갈, (4) 희랍語系——희랍, (5) 슬라브語系——소련,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6) 이란語系——이란, 이락,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7) 썬스크리트語系——인도, 세일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보아 世界 어떠한 民族語를 막론하고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순수한 自國語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同一國內에서 몇 個의 言語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生活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이것은 瑞西이다. 이 나라의 語系는 獨逸系 69%, 佛蘭西系 19%, 이탈리아系 10%, 로만슈系 0.9% 등으로 되어있다. 瑞西의 領土는 韓半島의 5분의1 밖에 안되고, 눈(雪)과 바위(岩石)의 나라로서 人口는 불과 500萬이나 그들의 年間輸出은 27億弗에 달하고 貨幣의 安定度는 世界第一을 자랑하고 있다.

또 日本은 前述한 바와 같이 平安朝時代(中世)에 漢字에 依하여 假名文字를 案出하여 漢字와 併用함으로써 西歐文化를 흡수하여 長足の 發達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漢字를 利用하지 않았던들 그들의 文化가 오늘과 같이 進展되기는 困難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日本의 識者間의 共通된 告白이다.

우리 말은 漢文化를 輸入한 후로 부터 漢字語와 우리 固有語의 二元으로 構成되었는데 한글이 發明된 후로 부터 한글로 表現된 固有語와 漢字語가 併行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글과 漢字語를 우리 身體에 比한다면 唇과 齒의 關係와 같고, 骨格과 皮膚, 血脈과의 關係와 같은 것이다. 이 兩者가 一體가 되어 우리의 言語生活을 豊富하게 하고 이로써 文化를 發展시켜온 사실을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漢字와 한글이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말의 半 이상은 漢字語로 되었다는 사실 自體가 明證하고 있다.

이와 같이 二元的 要素로 된 言語에 對하여 하나 만을 두고 다른 하나를 除去한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不具를 招來하는 悲劇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二要素로 된 言語를 純粹한 하나의 要素로 된 言語로 轉換시킨다는 것은 正녕 不可能에 屬하는 苦役일 뿐이다. 우리말이 二重으로 되었다고 하여 不合理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와같은 貴重한 言語를 다듬고 닦아서 더욱 빛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責務라고 본다.

XI. 漢字中毒說에 對하여

一般的으로 漢字는 한번 보면 大體의 뜻을 곧 把握할 수 있으나 한글은 全部 읽어보지 않고는 그 뜻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習慣性 때문이며 既成世代 즉 老人層이 漢字에 中毒된 結果라고 한글人士들은 主張한다. 무엇이냐 比較하여 보지않고 덮어 놓고 우리것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主張도 通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어렸을 때 自己 父母가 제일 훌륭하고 親切과 제마음이 가장 좋게 보인다. 그러나 차츰 자라감에 따라 다른 對象에 比較하여 보는 批判力을 가지게 되면 自己 父母나 自己 집이나 自己 마을보다 훨씬 훌륭한 對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三千里錦繡江山이란 노래를 배우고 우리 江山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들이 자라서 外國旅行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볼 것인가? 한글人士들은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優秀한 文字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우리 한글로 F字나 V字의 發音을 正確히 表示할 수 있다고 보는가? 勿論 우리 것을 자랑하고 貴重히 여겨야 하며 筆者自身도 한글을 愛重히 여기며 참 훌륭한 文字라고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사랑하면서도 그 缺陷을 아는 것이 知性人의 姿勢라고 본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의 視覺的 認識過程에 있어 한글은 漢字만 못하다. <一>과 <하나> <山>과 <산>, <水>와 <물>, <勝利>와 <승리>, <失敗>와 <실패>가 어느 것이 우리의 눈에 빨리 投映되는가를 보아서 알 수 있다. 日本에서 名神間 高速道路를 開設하고 道路標識을 하려고 할 때에 로마字, 漢字, 假名字의 셋을 가지고 그 判讀의 速度를 실험한 結果, 로마字는 10數秒, 假名字는 數秒, 漢字는 數分之一秒가 걸리는 것을 알아내고 漢字로써 標識하기로 하였다.

英國 케임브리지大學 教授 데브네博士는 말하기를 “英國에서는 겨우 數千部밖에 팔리지 않는 技術書籍이 日本에서는 10萬部以上이 팔린다 이와같은 讀書能率이 日本으로하여금 世界第一로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日本의 石井勲氏는 “日本의 明治時代의 發展과 2次大戰後의 興隆은 讀書能率 때문이라”고 證言하고 있다. 그런데 日本의 書籍은 假名文字와 漢字의 混用體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 아는 事實이다. 남들은 漢字의 偉力을 빌어서 그들의 興隆을 企圖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前부터 가지고 있던 漢字를 抹殺하여 버리면서 讀書能率을 低下시키는데 熱誠的인지 모를 일이다.

또 最近 日本의 朝日新聞社說 『科學技術教育和 國語教育의 重要性』이라는 題下의 論說을 보면 「近者 科學技術教育의 必要性이 絶叫되고 있는데 그 根底에 있는 國語教育의 重要性을 忘却하여서는 않된다. 極度로 正確한 表現과 理解를 要求하는 科學을 배우는 데는 細密한 知識과 技術 그 自體보다 學問研究를 爲한 基礎가 되는 國語를 단단히 몸에 붙이는 것이 肝要하다. 科學을 修得하기 爲하여는 먼저 先人의 著述이나 記錄을 正確히 理解할 수 있는 讀解

力を 必要로 한다. 다음은 스스로 觀察하고 實驗한 것을 論理的으로 細密히 기록하는 表現力을 缺하여서는 안된다. 결국 科學이나 技術만 아니고 모든 學問의 進歩하는 根底에는 그 나라의 國語의 힘에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實施하고 있는 漢字廢止教育은 우리 國語의 根底를 破壞하는 作業임을 깨달아야 한다. 直感力과 理解力을 增進함에 있어 한글보다 漢字가 越等하다는 事實을 아래 몇가지 事例로도 立證하고 있다. 요즘 映畫館의 廣告板이나 各種 포스타 등에 있어 할 수만 있으면 漢字를 써서 한눈에 얼른 띄게 하려는 傾向이 짙어가고 있으며 入試 혹은 運動競技때에 <檄> <必勝> 등의 격려文句를 入口에 써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붙인 사람들은 새파란 젊은이들이고 漢字中毒의 老人層은 아니다. 또 都下 各 新聞을 보면 一部 特殊紙를 除外하고는 다 한글, 漢字混用體로 되어있는데 新聞記者나 讀者들은 다 漢字中毒者는 아닐 것이다. 新聞人들은 新聞은 우리 社會의 公器이고 木鐸이라고 自負하고 있으며 그들은 世道人心의 歸趨와 利害得失에 가장 敏感한 識者들이라고 볼 때에 한글과 漢字를 混用하는 것이 一般 民衆의 切實한 要求라는 事實을 알 수 있다.

XII. 漢字機械化不能 主張에 對하여

한글人士들은 漢字는 機械化할 수가 없어서 不便하다고 主張한다. 물론 現代와 같이 生存競爭이 激烈한 時代에 있어 모든 것이 能率的이고, 迅速성이 있는 것을 必要로 하므로 文字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要請이 있음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文字는 반드시 能率的이고 迅速하다는 것이 그 價値의 전부는 아니다. 文字는 現在에 있어 많은 對像에 對하여 쓰는 사람의 意思를 傳達하는 역할을 함은 물론이나, 同時에 과거와 장래에 對하여 어떤 관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도 그 價値가 있다. 文字는 人間의 意思를 傳達한다는 單純한 實利的 價値만 있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情緒를 表現하여 相對方의 興趣를 誘發하는 藝術的 價値도 있다.

人類가 文字를 發明하여 直接 손으로 書寫하던 時代를 거쳐 量的으로 더 많은 需要가 要請될 때로 부터 鑄字術과 印刷術이 案出되어 多量의 書籍과 印刷物이 刊行되었다. 漢字는 機械化할 수 없다는 異論은 西洋사람들이 알파벳文字를 타이프에 依하여 1分間에 百數十字씩 적어내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人間社會는 機械가 主人이 아니고 人間이 主人이다. 人間이 機械를 發明하고 人間이 機械를 사용할지언정 機械가 人間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人間은 必要에 依하여 얼마든지 機械를 考案하고 製作할 수 있다. 必要는 發明의 母라는 말은 人間이 必要에 依하여 얼마든지 機械를 製作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漢字를 機械化할 필요가 있다면 그 方法은 곧 發明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와 같이 漢字圈에 屬하고 있는 中國, 日本에서는 벌써 漢字를 치는 텔레타이프가 發明되

어 실제 活用되고 있는 實情이며, 알파벳字 타이프에 못지 않는 漢字打字器의 出現을 確信하고 있다.

現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打字器는 數 10年前부터 考案을 거듭한 결과 오늘과 같은 優秀品을 發明하였으며 漢字音記의 한글을 그 打字器로 打字하는 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는다. 漢字를 알고난 후에 한글로 打字하면 더욱 確實하고 漢字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더 正確한 理解를 가질 수가 있다. 또 짐승은 먹는 것 만으로 살 수 있으나, 人間은 먹으로만 살 수 없다. 人間에게는 宗教, 藝術 等に 對한 情緒的 欲求가 있다. 西洋의 글자는 藝術的인 것이 아니고 實用的인 것이나 東洋의 漢字는 實用的임과 同時에 藝術的 韻致가 있다. 漢字體는 實用性和 藝術性이 함께 發達하여 왔다. 漢字는 深奧하고 優雅한 興趣가 있는 하나의 藝術品이다. 이와같은 書藝에 對한 興趣를 西洋人은 鑑賞하기 어려운 것이다. 東洋藝術品이 반드시 西洋人의 口味에 맞아야만 價値가 있는 것은 아니다. 東洋人은 東洋人대로의 藝術과 興趣를 保有하는 것이 人類文化的 交流에 있어 多彩로워서 더 좋은 것이다. 東洋人은 揮毫할 때의 精神姿勢와 名筆의 書體를 볼 때 一種의 神秘를 느끼게 되며 이 書藝로써 精神修養의 道具로 삼는 일도 있다. 中國의 名筆 王羲之, 柳公權, 蘇東坡 等の 書體라든가, 우리나라의 名筆 韓石峰, 金秋史 等の 筆致는 오늘에 있어서도 그 生氣가 躍動하고 興趣가 發達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간단한 書狀을 받을 때도 전부 印刷한 것을 볼 때와 잘 쓰던 못 쓰던 間에 親筆로 쓴 것을 받았을 때 어느 것이 더 親密感을 주는 가를 생각하여 보면 글자를 손으로 쓴 것과 機械로 박아낸 것과의 差異와 그 價値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文字는 實用的인 面에 있어 機械化하는 것도 必要한 일이나 情緒的인 面에 있어 藝術性을 保有하면서 人間의 손으로 親書하는 面에도 價値가 있다는 事實을 銘記하여야 되는 것이다.

XIII. 一方廢止, 一方獎勵의 矛盾된 主張에 對하여

韓非子 難世篇을 보면 창(矛)과 방패(盾)를 팔러다니는 商人이 그의 방패를 쳐들고 하는 말이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하여 어떤 창을 가지도고 뚫을 수 없다하고 다시 그의 창을 쳐들고 하는 말이 이 창은 아주 예리하여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다고 선전하였다. 그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中 하나가 묻기를 그대의 창을 가지고 그대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고 하니 그 商人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矛盾이라는 熟語의 典故이다.

1955年 8月 5日 우리나라 文教部令 第44條에 依하여 國民學校 4, 5, 6學年 國語教科書에 限하여 漢字 774字를 判호 안에 넣어 가르치도록 하였다가, 1964年 5月 1日, 初·中·高 國語教科書 合同編纂審議會에서 國語教科書에 判호안에 넣었던 漢字를 露出시켜 音讀과 發音의

뜻을 지도할 것을 결정하고 文教部長官의 決裁를 얻었다. 그 理由로서 (가) 漢字를 教育하지 말라는 法的 근거가 없다는 것, (나) 漢字를 무시하는 教育은 社會現實과 遊離된 教育이라는 것, (다) 國定教科書는 公用文書가 아니라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참조: 1948年 10月 9日 한글專用法 第6號 및 大統領諭示 第8號——모든 公用문서에는 한글을 전용한다. 단, 당분간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國民學校에서 600字(4年以上), 中學校에서 1,000字, 高等學校에서 1,300字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文教部는 1969년부터 國民學校 國語教科書에서 露出漢字를 전부 삭제하고, 中學校 漢字教科書를 폐지하고 1970年 3月 1日부터 完全히 漢字가 삭제된 教科書를 사용케 하였으며 高等學校에서만 選擇科目으로 가르치되 人文高校에서는 8單位 3年間 每週 1時間씩, 實業高校에서는 2~4單位 즉 1年 혹은 2年間 每週 1時間씩 漢字를 가르치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學問은 가장 感受性이 예민하고 記憶力이 왕성한 幼年時節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더우기 國民學校 教育은 國民의 기본교육이므로 누구나 다 平等으로 받는 교육인 것 만큼 國民學校때 漢字를 배워야 記憶에 남게되고 活用に 흥미를 가지게 되어 비록 中高等學校에 進學하지 못할 경우라도 既得한 漢字知識으로써 신문 잡지를 읽을 수 있고 좀 더 분발하면 高等教育 知識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每年 國民學校를 졸업하는 學生이 약 100萬명인데 그 가운데서 中學校에 進學하는 자는 겨우 50萬에 不過하다 고 하니 나머지 50萬은 漢字文盲으로 落伍되고 마는 실정이다.

한글人士들은 一方으로는 결사적으로 漢字廢止를 주장하여 初·中等學校教材에서 漢字를 빼도록 하여 놓고 他方으로는 漢字는 더욱 철저히 學習하여야 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니 어느 것이 眞意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것은 방패와 창을 파는 商人의 口號와 비슷한 주장이다. 또 初·中等學校에서 漢字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高等學校에서만 選擇으로 漢字教育을 實施하려는 것도 1幕의 喜劇이다. 왜냐하면 漢字知識이 전혀 없는 高等學校 학생들에게 하늘 천(天), 땅지(地)부터 가르치라는 말인가? 것처럼 人氣가 없고 魅力을 잃은 漢字를 누가 배우며 누가 가르칠 것인가? 우리 語源의 殆半을 차지한 漢字에 對하여 배우기 어렵고 主體性 상실이란 이유로 빼버리면서 英語科目은 中學校에서만도 適當 5~6時間은 가르치고 있으니 漢字를 배우면 主體性이 상실되고 英語를 배우면 主體性이 確立된다는 말인가? 이 또한 矛盾이다. 漢字가 우리生活과 하등의 관계도 없다면 高等學校에서 選擇科目으로 넣을 필요조차도 없지 않은가? 漢字를 가르쳐야 한다는 社會의 輿論이 沸騰하게 되니 이에 對하여 어떤 名目으로든지 가르치고 있다는 口實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 또한 語文政策에 對한 不誠實한 姿勢이다.

栗谷先生은 宣祖에게 올린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썼다. 「自古로 國家가 信賴하여 維持되는 바는 士林이다. 士林은 國家의 元氣이다. 士林이 旺盛하고 和睦하면 그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士林이 激動하고 分散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士林

이 敗壞하고 無力하면 그 나라는 亡한다』고 하였다.

오늘의 한국의 學界는 士林이며 국가의 元氣이다. 국가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文教政策中의 한 要素인 語文政策을 決定함에 있어 가장 정직하고 謙虛한 姿勢로서 과거 數千年의 傳統文化를 顧慮하고 현재 우리가 處한 情勢와 장래에 있어 이 文化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學界의 衆智를 모으고 理論的 研究와 實際的 實驗을 通하여 가장 적절한 結論이 내려졌을 때 결정할 문제이고 결코 어느 一部 學術團體나 少數學者들의 擅斷이나 固執으로 左右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XIV. 한글教育 25年間の 實況

筆者는 어느 날 銀行 窓口에서 어떤 少年이 저금통장을 쥐고 左往右往하는 것을 보고 그 理由를 물었더니 저금을 찾는 領收票에 漢字로 <四萬>원이라고 쓰라는 係員의 要求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의 身元을 물었더니 中學校 3年生이라고 하였다. 中學 3年生이면 定規教育을 받은지 9年이다. 9年동안에 <四萬>이라는 두 글자를 쓰지 못하는 教育이 바로 解放以後 우리나라 教育의 實相이다. 이 悲痛한 實話를 한글專用教育을 高집하는 人士들에게 알리고 싶은 心情이다. 이런 實情을 보고서도 계속 한글專用教育을 強調할 것인가?

1970年度부터 國·中·高校의 教科書는 全部 한글 一色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教師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學生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자못 궁금하여 筆者는 國民의 義務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國民學校 一線 教師들에게 純 한글教科書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들은 異口同聲으로 다음과 같은 難點을 擧げ하고 있다. 즉, 低學年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語彙를 쓰고 있으므로 큰 難點이 없으나 4學年 부터는 兒童들의 想像力과 推理力이 왕성하여 낱말 뜻의 比較와 그 眞義를 正確히 判別하지 않고는 滿足하지 않으며 同音異義의 낱말에 대한 質疑가 激增하므로 盲目的 暗記를 強要할 수 없게 되어 自然히 그 語源을 밝히는 2重受苦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例하면 <文武>라는 單語를 한글로 <문무>라고 가르칠 때에 <문>은 글이라는 뜻이고 <무>는 쟁기 혹은 무기라는 뜻이라고 하면 그들은 다시 <문제>라는 <문>과 <무용>이라는 <무>와는 어떻게 다른가고 묻는다. 이와같이 追窮을 당하면 할 수 없이 그 語源인 <文武>라는 漢字를 써서 說明하면 그때야 그들은 正確한 區別을 하고 分明한 概念을 얻게될 뿐 아니라 文武 두 글자를 推理하여 文官, 武官, 文人, 武人, 文筆, 武力 등 많은 낱말을 創造하여 내고 滿足하여 한다. 또 우리 한글로 나무, 숲, 산림 등 낱말을 暗記시키는 것보다 木, 林, 森 등 漢字를 象形하여 說明하면 視覺을 通하여 그 뜻을 빨리 把握하여 興味를 誘發하므로써 많은 分量의 單語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글로는 긴 述語를 縮約하여 간단한 낱말로 概念을 構成하기 힘들지만 漢字語는 大體로 이 縮約概念語로 되어서 述語短化의 現代的 호

름에 副合된다고 한다.

예하면 韓國銀行을 「韓銀」으로, 共產主義 反對를 <反共>으로, 臨時政府를 <臨政>으로, 國立 서울大學校 統合案을 <國大案> 등과 같이 表記하면 우리 言語를 短縮시키면서도 明確한 概念을 가질 수 있으며 더욱이 歷史的 人物이나 事件 등을 우리 한글로 쉽게 記載하려면 많은 分量의 敘述을 必要로 하지만 國漢混用의 方法을 取한다면 이것이 가장 實利的이고 簡便하며 敎示에 便利하고 概念構成을 쉽게 하는 最善의 길이 될 것이라고 一線教師들은 呼訴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을 보아 現在 우리 敎育은 낱말 풀이로써 大部分의 時間과 努力을 浪費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다시 敎材內容의 一例를 들면 1968年 12月 5日 頒布된 『국민교육헌장』은 各 敎科書裏面에 첨부되어 있고, 各級學校에서 거의 暗誦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全 字數 390餘中에서 漢字語로 된 것이 150餘個로서 全 字數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漢字語로 된 낱말들을 우리 한글로 쉽게 풀이하려면 수 많은 時間과 努力과 글자 數가 所要될 것이다.

또 高3 敎材를 보면

국어 :

『다시 말 해서 비약적인 인지의 발달은 인간 생활을 기계화 시키고 이 기계화로 다시 인지의 발달이 촉진되어 결국 지식의 축적이 가속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진하게 하직하고 본 맥으로 나아갈제 철관풍채는 심산맹호 같은지라...』
『막중국사 거행불명 즉 죽기를 면하지 못하리라』
『추상같이 호명하여 서리 불러 분부하되...』

국사 :

『왜란과 호란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나머지 자아를 반성하고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외래 문물의 자극을 받아 과거의 고루하고 공허한 학풍을 버리고 보다 더 실제적이며 넓은 시야에서 자아를 알고 자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을 탐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실학 즉 실사구시의 학문으로서 이러한 학문의 선구자는 선조, 광해군 시대의 이수광을 들 수가 있다.』

위와같이 한글로 掩蔽된 많은 漢字語들은 國民學校에서 넉넉히 習得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高3年에 와서야 일일이 漢字源意를 더듬어서 가르치는 迂廻敎育은 莫大한 時間과 努力, 經費의 損失과 浪費를 가져올 뿐이다. 그 뿐이랴. 이것은 現代文體이기 때문에 비교적 解得하기 쉬우나 國語科目에 있어 『思美人曲』, 『吊針文』, 『古時調』, 『歌辭』, 『己未獨立宣言文』等 古文章 또는 擬古文章을 純 한글로 바꿔 놓고 본즉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의 苦役이 어떠하랴? 더욱이 웃지못할 사실은 敎師는 물론, 知覺있는 學生들이 漢字를 섞어서 쓴 위의 古本을 찾으려고 古本書店을 遍歷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大學에 있어 漢字廢止敎育의 結果를 살펴보면, 答案紙 記入樣相이 過去에 比하여 低級, 幼稚하고, 高等概念을 표현한 專門書籍, 新聞, 雜誌를 똑똑히 解得하지 못하고 讀書能力

이 低下되어 各 大學의 圖書館은 試驗期間外에는 대체로 空白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各 大學街의 書店들은 閉門 撤收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相當數의 大學生들이 漢字教育의 復活을 熱望하고 있음은 鼓舞的인 事實이라 할 수 있다.

以上 要約하면 한글專用的 語文教育은 우리나라 教育의 質的 低下를 招來하고 어려운 學問을 하려는 意志가 減少되고 安易한 것만 趨向하는 氣風을 造成하고, 國語의 混亂, 傳統文化의 放棄, 國民一般 知性的 低下, 道義心の 衰退 및 學術研究意慾의 沮喪, 나아가서는 東洋文化圈에서의 脫落現狀을 招來하고 있다.

XV. 漢字教育復活實施의 當然性

以上 數萬言에 達하는 例證論述은 一言以蔽之하고 漢字廢止施策을 止揚하고 다시 漢字教育을 復活시켜야 한다는데 그 目的이 있다. 漢字教育의 目的은 첫째로 漢字 그 자체가 所有하고 있는 價値性에 있고, 둘째로 우리의 過去 歷史와 現在 位置에 立脚한 環境的 必要性에 있다. 이와같은 價値觀에 立脚하여 다음과 같이 漢字教育復活의 當然性을 強調하려 한다.

1. 漢字는 知能啓發에 有益하다

前述한 바와같이 漢字는 學習하기 쉽고 3,000字 程度만 알면 無量數의 單語를 創造할 수 있는 造語力을 얻게되어 우리의 文化生活 內容을 潤澤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社>字 하나를 가지고 社會, 社說, 社長, 社員, 社論, 社務, 社稷, 또는 會社, 民社, 宗社, 配社, 結社 等を 만들 수 있으나 우리 한글 <사>字로서는 그와같은 많은 單語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한글을 專用하면 결과적으로 思考力이 單純해지고 推理力이 不足하게 되어 우리 文化는 單調로운 文化로 退化할 것이라고 보아서 틀림 없을 것이다.

2. 漢字는 讀書能率을 增進시킨다

漢字는 글자 자체가 그 意味를 視覺的으로 直感케하는 表意性을 가지고 있음으로 一見하여 全體의 뜻을 一括把握할 수 있으며 글자의 一部가 缺損된 경우라도 그 글자 全體의 모습을 보고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그 反面 우리 한글은 한 劃이라도 틀리면 전혀 다른 字가 되며 文章 全體를 읽어보지 않고는 그 大義를 把握키 어려운 缺點이 있다. 그 동안 古典을 한글로 번역하면 된다하여 莫大한 努力과 時間과 經費를 들여서 많은 古典들을 번역해 냈으나 그것을 읽는 讀者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러한 現象의 根本理由는 古典의 述語를 한글로 音譯한데 基因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佛經의 「四聖諦: 苦諦, 集諦, 滅諦, 道諦」를 「사성체: 고체, 집체, 멸체, 도체」로 번역한다면 누가 그 뜻을 알 것인가? 이것을 純 우리 한글로 다시 풀어서 번역한다면 그 얼마나 散漫하고 曖昧한 것이 될 것인가? 그러므로 古典은 우리 한글에 적당한 漢字를 섞어서 번역함으로써만 讀書 興趣를 誘發하고 讀書 能率을 增進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漢字는 含蓄性和 永久性이 있다

漢字는 한 글자에 많은 넓고 깊은 뜻이 內包되어 있고 또 永遠不變性이 있어 몇 千年後라도 그 뜻을 理解할 수 있는 特徵이 있다. 例를 들면

龍飛御天歌卷第六 四十三章

東征에 功이 沒이나 所掠을 다노호샤 歡呼之聲이 道에 洋溢하니 西征에 功이 立어늘 所獲을 다도로주샤 仁義之兵을 遼左——깃습으니

東征無功 盡放所掠 歡呼之聲 道上洋溢.

西征建功 盡還所獲 仁義之兵 遼左悅服.

위의 노래는 거금 500年前 世宗大王이 한글 頒布前에 正音으로 지은 것을 漢譯한 것인데 兩者를 비교하여 보면 漢字가 한글에 比하여 얼마나 不變性이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거금 2,500年前에 기록된 論語에 「朝聞道 夕死 可矣」라는 文句는 약간의 漢字知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음을 보아 漢字로 기록된 것은 時間的 制約을 받지 않고 그 뜻을 傳할 수 있는 不變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漢字는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키는데 有助하다

우리 先人들이 남긴 古典中 三國遺事, 三國史記를 위시하여 經典, 史書, 文集, 기타 汗牛充棟의 많은 書籍들은 다 漢字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漢字廢止施策을 계속한다면 今後 불과 20년에 그 모든 文獻들은 死藏되어 버릴 것이며 우리 後孫들은 멀리 日本人이나 기타 外國人の 研究로 된 우리 古典解釋을 얻어보는 程度에 그칠 것이고 우리 民族은 傳統文化를 스스로 포기한 民族으로 轉落될 것이다. 그 反面 學術的 高等概念을 表現하는 述語들은 다 西洋語로 記入하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만족하는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羞恥스러운 現象을 防止하는 方法으로서 우리 子弟들에게 漢字教育을 철저히 實施하여 우리 先人들이 남겨놓은 典籍을 學習케 함으로써 悠久한 文化傳統을 繼承發展한다는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漢字는 東洋文化의 基盤이며 共通의 文化財이다

世界文化圈을 나누어 알파벳文字를 中心으로 한 西洋文化圈과 漢字를 中心으로 한 東洋文化圈으로 區分한다면 우리는 後者에 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한글만 專用하고 漢字를 拋棄한다면 우리는 東洋文化圈에서의 既存의 文化交流線을 斷切하게 되어 스스로 이 文化圈에서 脫落하게 될 것이다.

政治, 經濟, 文化, 教育 등 諸般 分野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는 그 交流의 重要性이 高調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그 交流가 世界 어느 國家보다도 不可避한 日·中兩國과의 國際關係에 있어 漢字를 媒介로 하지않고 어떻게 國交를 圓滑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전혀 계통이 다른 第3 外國語를 借用할 수 없는 것도 自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보면 東洋文化의 基盤이 되며 共通의 文化財인 漢字를 배우는 것이 實利的으로도 時急한 일이라고 본다.

結 論

以上 論述을 總括하면 學校教育에 있어 漢字廢止는 非理이므로 漢字教育은 반드시 復活되어야 하고 한글專用은 臆志이므로 그것은 반드시 中止되어야 하며 한글과 漢字를 混用하므로써만 完全한 教育效果를 거둘 수가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것만이 順理이고 實利이다.

한 나라의 語文政策은 어떤 特殊個人이나 團體가 左右할 일이 못되며 어떤 統計數字에 依하여 多數決로 決定할 問題도 아니다. 더우기 文化에 있어서는 變更不能의 既定事實이란 있을 수 없다. 國政施行에 있어 다른 部門의 施行錯誤는 그 영향이 一時的인 것이 常例이나, 語文政策만은 한번 施行錯誤를 하면 적게는 個人의 一生, 크게는 全國民과 긴 歷史에 큰 不幸을 끼칠 憂慮가 있다는 事實을 銘記하여야 한다. 어떠한 功利나 榮達에 對하여 秋毫의 關心도 없는 個人이나 學術團體로 부터 나오는 良心的 呼訴에 對하여 當局은 귀를 기울이는 度量과 慧智를 가지기를 要할한다.

近年 語文政策 是正을 爲하여 많은 學術團體의 이름으로 當局에 建議를 하고 있는데 그 大意는 다 漢字教育을 復活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集約되고 있다.

이제 그 具體的 內容을 總括하면 (1) 국민학교에서 600字정도, 中學校에서 1,000字정도, 高等學校에서 1,300字정도 가르칠 것 (2) 국민학교 國語教科書는 國漢文混用體로 하고 其他教科書에서 漢字없이는 理解가 困難한 것은 括弧안에 漢字를 넣어 가르칠 것 (3) 中學校는 國語教科書의 國漢文混用體와는 別途로 從前과 같이 漢字教科書를 復活시킬 것 (4) 高等學校教科書는 全教科書를 國漢文混用으로 할 것 (5) 一線教師로 하여금 漢字 및 漢文研究에 留意케 하고 漢字語를 가르침에 있어 板書 其他 方法으로 漢字指導를 許容勸獎할 것 등인데 이와같은 建議는 가장 公正하고 時宜에 適切한 要請이라고 본다.

이에 對하여 當局은 조금도 주저할 것 없이 그 建議를 받아 들여서 過去의 迂廻教育에 終止符를 찍는 案斷을 내리는 것이 가장 賢明한 措處라고 본다.

參考文獻

1. 大東文粹(訓民正音後序) 肅宗
2. 三國史記 金富軾
3. 朝鮮王朝實錄(世宗29年) 卷四
4. 增補文獻備考 朴容大 等編
5. 朝鮮上古民族史(1966) 崔棟(東國文化史)
6. 韓國文化史大系V(1967) 言語·文學史篇(高大民族文化研究所)
7. 國語學概論(1955) 李熙昇
8. 音韻論研究(1955) 李崇寧
9. 東國正韻式漢字音研究(1966) 南廣祐
10. 國語音韻學(1960) 許 雄
11. 國語의 將來와 漢字의 再認識(1968) 朴定緒
12. 漢字問題의 科學的 檢討(1969) 柳正基
13. 現代繪畫의 根本問題(1968) 吳之湖
14. 國語에 對한 重大한 誤解(1971) 吳之湖
15. 한글 전용으로의 길(1971) 한글학회
16. 「한글 오로지 씀」의 試行錯誤 世代(100號, 1971) 南廣祐
17. 中共의 文字改革과 漢字問題, 外大學報(第2집, 1959) 許宇成
18. 작은 나라가 사는 길(스위스의 경우)(1965) 李漢彬
19. 中共文字改革與漢字前途(1964) 汪學文
20. 共匪拚音文字批判(1952) 李由農
21. 中國語文研究(1945) 周法高
22. 文字改革論叢(1946) 黎錦熙
23. 總理全書二(孫文學說)(1942) 中央文物供應社(臺北)
24. 國字問題의 理論(1943) 佐伯功介
25. 國語國字問題(1926) 福永恭助
26. 國字問題의 本質(1942) 松坂忠則
27. 漢字에 依る 才能開發(1970) 石井 勲
28. 國語學史 山田孝雄
29. 國字問題十講 加茂正一
30. *Philology and Ancient China*(1926) Bernhard Karlgren